

제10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성황리에 마쳐

— 도심 속 인쇄축제에 시민과 관광객 발길 줄이어

우리 조합과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10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5만여 명의 인쇄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서울인쇄대상에는 서울시의 이해우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 새누리당의 이우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박홍근, 유은혜 국회의원, 그리고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등 서울시 관계자 및 국회의원, 인쇄계 인사를 비롯하여 300여 명의 인쇄인들이 참석했다. 시상에 앞서 이번 서울인쇄대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류명식

위원장은 “입상한 수상자는 물론이고 낙선한 작품의 수준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었다”며 “특히 책자인쇄 부문의 출품작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한 인쇄 기술이 돋보였으며, 홍보인쇄, 생활인쇄 부문에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남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매년 발전을 거듭하며 인쇄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쇄문화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했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인쇄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쇄산업 전체가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제 본 행사는 인쇄중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사와 품격을 갖춘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서울인쇄대상 전경



1 대상 - 박장선 (주)투데이아트 대표 2 금상 수상자 3 은상 수상자 4 동상 수상자
5 우수상 수상자 6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7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8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9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0 김남수
조직위원장 11 류명식 심사위원장 12 감사패 수상자

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우리는 반만년 문화민족의 후예로서 그리고 인쇄 종주국의 자랑스러운 인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축제는 한국 인쇄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둘째 형님이 인쇄업에 평생을 몸담은 인쇄가족이다. 60~70년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쇄업을 옆에서 지켜봤고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혁신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0주년을 맞이해 올하는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가 변하며 인쇄업이 과거보다 위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인쇄업은 변함없는 미래 산업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인어른이 50년 동안 인쇄업에 종사했고 치남이 대를 이어서 인쇄업을 하고 있다.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출판과 인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2016년에 열리는 세계인쇄회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인쇄산업이 세계 만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인쇄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국회 상인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인쇄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겠다”며 “인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문화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쇄 종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인쇄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품격 있게 가꿀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시를 보냈다.

이번 제10회 서울인쇄대상의 대상은 ㈜투데이아트(대표이사 박장선)에서 출품한 <태양 RISE + BEST COLLECTION VINYL>이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상·하짜 박스로 LP음반과 가수 태양의 사진엽서, 포토사인지, 포스터 등이 들어있는 LP음반 인쇄작품으로 겉 패키지에 렌티큘러라는 원단을 사용해 입체적인 효과를 준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 디자인부터 아이템들까지 일관된 콘셉트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에 이어 감사패 시상, 서울시 유공자 표창, 조달청장 유공자 표창 등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인쇄대상이 끝난 뒤에는 김남수 이사장이 선두로 내외빈을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한 후에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 인쇄문화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종이, 활자 그리고 인류’를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와 풍성한 콘텐츠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10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종이, 활자 그리고 인류’를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인쇄대상 역대 수상작품 전시, 수출인쇄물과 특수인쇄물, 복원인쇄물, 친환경 종이 등 인쇄산업 전시 프로그램과 고인쇄 체험, 3D프린팅 및 디지털 인쇄 체험, 만화가 허영만 작가 전시 체험관 등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한류와 관련한 다양한 인쇄물 전시 및 행운권 추첨 등 문화 행사 프로그램 등 20개 부스, 14개 프로그램으로 1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가장 큰 규모와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엔틱 인쇄기 전시 부스에는 청타기와 금박기 등 과거에 널리 쓰이던 인쇄도구가 전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과거의 인쇄업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10회 서울인쇄대상 수상자

부문	수상자
대상	박장선 (주)투데이아트 대표이사
금상	서명현 (주)태신인팩 대표이사 강형석 (주)숨씨카드 대표이사 권병서 동성인쇄(주) 대표이사
은상	임학래 (주)디자인인트로 대표이사 전태완 (주)완산정판 대표이사 고경열 배원인쇄사 대표 최윤희 국제사 대표
동상	김경수 맥컴코리아(주) 대표이사 석용찬 은성정밀인쇄(주) 대표이사
우수상	Andrew Yan Airy Pack Company Ltd. 대표이사 김귀동 서울공업고등학교 汪小明 Newlife Ltd.
감사패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주) 대표이사 임병섭 광일인쇄사 대표 SK엠엔서비스(주)
서울시 인쇄유공자 표창	곽효섭 효인피앤피 대표 김국진 문성원색 대표 원종성 (주)상현원색 대표이사 이태영 젤기획 대표 최영식 한양애드 대표
서울 지방조달청장 표창	이대현 대한정보인쇄(주) 대표이사 이상래 마이문화사 대표 한홍수 신영에이전시 대표



가지기도 했다. 특수 인쇄물 전시 부스에서는 각종 산업 용지를 통해 만들어진 특수 인쇄물을 전시하고 한글이 프린팅 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인쇄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허영만 작가 전시 체험관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만화가 허영만 작가의 역대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의 작품을 직접 그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 외에도 디지털 인쇄 체험, 3D프린팅 체험 프로그램 등 최신의 인쇄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등 인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행사의 특별 이벤트로 마련된 경품 추첨 행사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추첨을 통해 강서구의 유현후 씨가 1등 상품인

‘서울-제주 왕복 항공권’에 당첨됐으며, 마포구의 이한솔, 김명희 씨가 2등으로 ‘기초 화장품 세트’에 당첨됐다. 3등 경품은 ‘대림미술관 VIP 관람권’으로 경기도 성남의 김지수, 서울 중구의 김태우 씨가 당첨됐다. 마지막으로 4등은 ‘이집트 수공예 파피루스’가 경품이었으며 경기도 평촌의 이상동, 고양의 이은주, 서울 성동구의 김성규, 금천구의 이희지 씨가 당첨됐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제10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는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모두 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